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연구책임자 : 전영선 (건국대학교 HK연구교수)

공동연구자 :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통일부
통일교육원

chapter 01

- 들어가는 말 6

chapter 02

- 북한의 문화재 개념과 현황 12
- 1. 문화재의 개념
- 2. 문화재 현황
 - 1) 문화재 유형
 - 2) 유물 :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 3) 유적 : 국보유적, 준국보유적, 교시유적
 - 4) 천연기념물
 - 5) 명승지
 - 6)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

chapter 03

-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체계 38
- 1. 문화재 정책 변천
- 2. 문화재 정책 특징
 - 1) 계급적 문화재 정책
 - 2) 민족우월주의
 - 3) 배타적 민족문화
 - 4) 고구려 중심주의
 - 5) 평양 중심주의와 대동강문화론
 - 6) 반종교적 문화재 정책
- 3. 문화재 관리기구
- 4. 문화재 관리제도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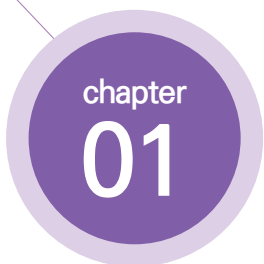
chapter 04

-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60
- 1.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의 역사
 - 1) 2000년 이전
 - 2) 2000년 이후
- 2.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기구
- 3.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 1) 학술대회 및 공동연구
 - 2) 공동 전시
 - 3) 문화재 발굴·복원
 - 4) 남북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

chapter 05

-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86

참고문헌



들어가는 말





chapter

01

들어가는 말

분단 이후 남북의 많은 것이 달라졌다. 민족문화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남북의 문화재 정책도 달라졌다. 문화재 정책에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문화재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난히도 민족문화를 강조한다. 북한에서 문화는 항상 민족과 연관되어 논의된다. 민족과 문화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것은 민족을 문화의 기본 단위로 보기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나라, 민족마다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서로 다른 만큼 문화는 민족을 단위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을 기본 단위로 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족문화는 곧 민족 발전을 상징하는 징표라는 것이다.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민족문화에 대

한 강한 긍정이다.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로 독자적인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개발로 이어졌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악기개발 사업이나 조선화의 다양한 장르화 등은 북한식으로 발전시킨 민족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식으로 발전시킨 민족문화는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문화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한류는 한국적인 정서 속에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내용을 담고 있기에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문화재는 남북이 오랫동안 한민족으로서 공유한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이다. 민족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사가 남긴 유형·무형의 가치 있는 유산이자 민족적 정체성의 근원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마땅히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동명왕릉 재실에 그려진 역사화

하지만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문화재 보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이 심해졌고,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나 장비도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훼손과 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민족공동의 문화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에 소재한 문화재는 ‘민족공동의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으로 발굴과 보존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남북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민족문화를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비롯한 남측 여러 민간단체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북한 소재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보존·관리, 발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사업으로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성 만월대 발굴 과정에서는 새로운 금속활자 발굴이라는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글은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고, 민족문화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문화재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입장에서 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향후 민족문화 보존을 위한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기존의 남북문화교류 협력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

chapter

02

북한의 문화재 개념과 현황

1. 문화재의 개념
2. 문화재 현황
 - 1) 문화재 유형
 - 2) 유물 :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 3) 유적 : 국보유적, 준국보유적, 교시유적
 - 4) 천연기념물
 - 5) 명승지
 - 6)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



chapter
02

북한의 문화재 개념과 현황

1.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의미한다.¹⁾ 북한에서도 문화재는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 및 유물’을 의미한다. 남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사상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북한에서 문화재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원칙에 맞는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 및 유물’이 중심이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대동강에서 바라 본 평양 대동문

보호대상이 되는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있다. 북한에서 문화재는 2000년 이전까지 유물과 유적으로 제한되었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발표하면서 무형문화재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으로 확대하면서, 천연기념물까지 포함시켰다.

유형문화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복궁, 덕수궁 같은 궁궐이나 사찰, 옛건축물 등 형태를 갖춘 문화자산이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무형문화재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 모두 포함된다.

기념물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기념이 되는 대상물이다. 기념물로 오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적지를 포함하여, 경치가 뛰어난 곳이나, 가치 있는 동식물,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모두 기념물에 포함된다. 민속문화재는 오랫동안 형성된 생활문화로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

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국민생활을 이해하는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풍부하고 가치 있는 문화를 형성한 문화민족으로서, 훌륭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문화재 현황

1) 문화재 유형

북한은 문화재를 크게 유물, 유적, 천연기념물, 명승지 등으로 구분한다. 유물과 유적의 경우에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국보유적, 준국보(보존급)유적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유적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관련한 것들도 포함되는데, 이를 ‘교시유적’이라고 한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직접 심은 나무나 이름을 지어준 동물, 혁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교시유적에 포함된다. 교시유적 이외에도 천연기념물에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관련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남북의 문화재를 비교하면, 북한의 문화재는 2008년 기준으로 2,816점이고, 남한의 문화재는 11,507점이다. 남북을 비교할 때 남한이 네 배 가까이 많다.

[표 1] 남북의 문화재 비교

	북한		남한	
보유 유물	국보유물 (87)	준국보유물 (121)	국보(315) 사적(483)	보물(1,731) 명승(87)
	국보유적 (193)	준국보유적 (1,723)	천연기념물(423) 중요민속문화재(267)	중요무형문화재(116) 시도무형문화재(454)
	천연기념물 (469)	명승지 (223)	시도유형문화재(2,722) 시도기념물(1,599) 등록문화재(497)	시도민속문화재(345) 문화재자료(2,468)
	총계	2,816 점	11,507 점	

남한의 문화재가 많은 이유는 문화재 정책의 차이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국가 차원은 물론 시·도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반면 북한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유적과 유물

등 물질문화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4년에 제정된 문화재 보호 관련 법이 「문화유물보호법」이었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문화유물’이었다. 무형문화유산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무형문화재로 보호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어도 모든 민족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궁중예술이나 양반층에서 즐겼던 문화유산, 종교나 민속과 관련한 문화유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철저히 계급적 입장에서 민족문화를 평가하고, 보호대상으로 삼았기에 보호대상으로서 문화재 숫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개성 남대문

2) 유물 :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북한에서 일차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유물이다. 문화재 정책 역시 유물 발굴과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유물론적 관점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역사도 유물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역사로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이 문화재 정책에 반영되면서, 문화재 역시 유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1994년에 제정한 법도 「문화유물보호법」이었다. 유물은 우리의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인류화석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문화재 관리 체계는 남한과 다르다. 남한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서 국보급, 보물급으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유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국보유물, 준국보유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소장 문화재에 대해 국보1호, 국보2호 … 등으로 번호를 매긴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이외에도 주요 박물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장 유물에 대해 번호를 매기는 체제이다. 문화재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 파악이나 관리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발간한 문화재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북한의 국보급 문화유물을 정리하면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북한의 국보급 문화유물 현황

강서대묘, 개성 남대문, 검은모루 동굴, 고성 온정리 마애불입상, 공민왕릉, 관산리 고인돌, 관음사 대리석 관음보살좌상, 금강산 표훈사,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지장보살좌상, 대동문, 대안리 제1호 벽화고분, 동명왕릉, 백동향로, 보통문, 보현사 구층석탑, 선죽교, 성동리 다라니석당, 수렴총, 쌍영총, 아미타여래도(후불탱화), 안악고분, 용강대총, 진흥왕순수비 등



북한의 문화유물 중에서 보물급 문화유물은 다음과 같다.

[표 3] 북한의 보물급 문화유물 현황

관음사, 구엽사, 길주향교, 보현사9층탑, 서산대사비, 선화당, 소현서원, 승인전, 신광사 5층탑, 신광사 무자비, 안국사, 여진문자비, 연복사종, 영통사 당간지주, 영통사 대각국사비, 의주남문, 자혜사석등, 중흥사, 천주사, 통군정, 함흥본궁, 함흥향교, 해주9층탑, 해주석빙고, 현화사당간지주, 흥복사 6각7층탑, 화장사사리탑, 회령향교, 흥국사탑 등

3) 유적 : 국보유적, 준국보유적, 교시유적

역사 유적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유적물로 '원시유적·성·봉수터·무덤·탑·비석·도자기 가마터·쇠부리터 등'이다. 유적은 한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된 역사적 산물로서 선사시대부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역사적 자산이다.



개성 고려박물관

역사 유적에 대해서는 문화유물과 함께 광복 직후부터 보호대상으로 관리하였다. 북한에서 문화재에 대한 보호 조치가 내려진 것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4월 29일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명의로 발표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인데, 고적(古蹟)은 중요한 보호 대상이었다. 북한의 국보유적은 다음과 같다.

[표 4] 북한의 국보유적

구분	유적명	소재지	구분	유적명	소재지
1호	평양성	평양직할시	41호	보현사 상원암	평안북도 향산군
2호	안학궁터	평양직할시	42호	보현사 축성전	평안북도 향산군
3호	보통문	평양직할시	43호	보현사 불영대	평안북도 향산군
4호	대동문	평양직할시	44호	구성읍성남문	평안북도 구성시
5호	송인전	평양직할시	45호	창성향교	평안북도 창성군
6호	송령전	평양직할시	46호	천주사	평안북도 녕변군
7호	보현사9층석탑	평안북도 향산군	47호	륙승정	평안북도 녕변군
8호	대성산성	평양직할시	48호	고려장성	평안북도 창성군

9호	청암리산성	평양직할시	49호	철옹성남문	평안북도 념변군
10호	대성산성남문	평양직할시	50호	서운사	평안북도 념변군
11호	대성산련못떼	평양직할시	51호	통군정	평안북도 의주군
12호	대성산고구려무덤떼	평양직할시	52호	의주남문	평안북도 의주군
13호	법운암	평양직할시	53호	금광사	평안북도 의주군
14호	룡곡서원	평양직할시	54호	박천 심원사	평안북도 박천군
15호	룡산리고구려무덤떼	평양직할시	55호	양화사	평안북도 태천군
16호	련광정	평양직할시	56호	룡오리산성	평안북도 태천군
17호	부벽루	평양직할시	57호	보현사 관음전	평안북도 향산군
18호	칠성문	평양직할시	58호	백마산성	평안북도 피현군
19호	을밀대	평양직할시	59호	성동리다라니 석당	평안북도 향산군
20호	청류정	평양직할시	60호	구주성	평안북도 구성시
21호	최승대	평양직할시	61호	릉한산성	평안북도 곡산군
22호	전금문	평양직할시	62호	룡골산성	평안북도 염주군
23호	평양중	평양직할시	63호	념변철옹성	평안북도 념변군
24호	홍복사6각7층석탑	평양직할시	64호	인풍루	자강도 강계시
25호	금강사터	평양직할시	65호	강계 망미정	자강도 강계시
26호	호남리사신무덤	평양직할시	66호	강계야사	자강도 강계시
27호	상원검은모루유적	황해북도 상원군	67호	안악제3호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28호	강서세무덤	남포특별시	68호	부용당	황해남도 해주시
29호	약수리벽화무덤	남포특별시	69호	해주석빙고	황해남도 해주시
30호	수산리벽화무덤	남포특별시	70호	해주3층석탑	황해남도 해주시

31호	백상루	평안남도 안주시	71호	해주5층석탑	황해남도 해주시
32호	강선루터	평안남도 성천군	72호	순명문터	황해남도 해주시
33호	훈련정	평안남도 평원군	73호	안악제1호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34호	안국사	평안남도 평성시	74호	안악제2호무덤	황해남도 안악군
35호	방선문	평안남도 성천군	75호	안악 월정사	황해남도 안악군
36호	동명왕릉	평양직할시	76호	로암리고인돌	황해남도 안악군
37호	황룡산성	남포특별시	77호	강서사	황해남도 배천군
38호	자모산성	평안남도 평성시	78호	룡동리고인돌	황해남도 배천군
39호	쌍기둥무덤	남포특별시	79호	소현서원	황해남도 벽성군
40호	묘향산 보현사	평안북도 향산군	80호	자혜사	황해남도 신천군
			81호	이하 계속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2005)



국보유적 18호 칠성문

역사 유적 중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이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유적이 있다. 이를 교시유적이라고 한다. 교시유적에는 북한에 있는 주요 문화재를 비롯하여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등 남한에 있는 문화재도 포함된다.

북한에서 교시유적은 학술적 연구나 보존 사업에서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역사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혁명 역사를 민족의 역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다. 문화재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천연기념물의 영역에서도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자료들을 포함한다. 북한의 교시유적은 다음과 같다.

[표 5] 북한의 교시유적

고령장성, 구주성, 창성 향교, 축성전, 천주사, 안주성, 불영대, 묘향산 보현사 대웅전·관음전, 함흥성, 대동강 나무다리터, 대성산 고구려무덤떼, 최승대, 부벽루, 만달리 동굴유적, 을밀대, 평양중, 평양성, 청류정, 룡곡서원, 법운암, 청암리성, 낙랑유적, 동명왕릉, 안악 1·2·3호무덤, 개성 관음사, 공민왕릉, 대흥산성, 만월대터, 선죽교, 장안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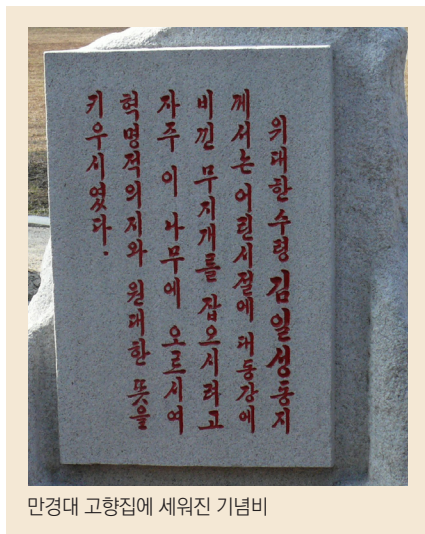
4)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식물, 동물, 광물, 지질 등 진귀하거나 희소하여 법률로써 지정하여 보존하는 모든 자연물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북한에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이다. ‘역사적 의미’를 가진 천연기념물을 ‘식물천연기념물’, ‘동물천연기념물’, ‘지리, 지질 천연기념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학술적인 의미의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및 풍치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

고 보호 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²⁾이다. 다른 하나는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것이다. 천연기념물의 선정에서 역시 최고지도자와의 관련성이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천연기념물을 식물천연기념물, 동물천연기념물, 지리천연기념물, 지질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만경대 고향집에 세워진 기념비

- ◎ 식물천연기념물(13가지) : 천연기념물나무를 비롯하여 특산식물 천연기념물 등
- ◎ 동물천연기념물(8가지) : 짐승류, 황새와 두루미류, 바다새와 물새류, 기타 새류, 물고기류와 조개류, 양서류와 파충류, 곤충류, 집짐승류
- ◎ 지리천연기념물(7가지) : 기묘한 바위, 바다기슭의 경치, 폭포, 담소, 호수, 동굴, 명소와 지형체
- ◎ 지질천연기념물(4가지) : 화석, 암석과 광물의 로두(로드), 지층의 구조, 온천과 약수

2) '제1장 천연기념물과 그 대상', 『천연기념물편람』(농업출판사, 1994), p. 9.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임을 알리는 표지
(고려성군관 은행나무)

북한의 천연기념물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학술적 가치를 지닌 천연 기념물과 함께 혁명역사와 관련한 천연기념물이다. 북한에서 규정한 천연 기념물은 천연기념물의 자연적인 가치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에는 희귀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선정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의 관련성이다.

최고지도자의 혁명과 관련한 기념물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연물”이라는 명목으로 천연기념물 범주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천연기념물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사상교양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고 역사적내용이 있는 대상,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의의가 있는 대상, 학술적 및 풍치적 내용이 큰 대상들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식물들은 우리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자연물이다.³⁾

3) 「제1장 천연기념물과 그 대상」 『천연기념물편람』(농업출판사, 1994), 9쪽.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천연기념물의 종류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만큼이나 다양하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이상화를 떠 올릴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상을 최고지도자와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이다.



삼일포 김일성·김정일 사적비

천연기념물의 하나인 ‘장자산 잣나무’에 대해서는 김정일과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장강군 장자산 설매골에서 당창건 5돐을 기념하여 어린 동생과 함께 두그릇의 잣나무를 심으시고 학생들이 한그루의 나무라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깨워 주시였다”⁴⁾고 소개하는 방식이다.

식물천연기념물의 경우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상’으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심었거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는 나무’, ‘혁명투쟁의 사실이 담긴 나무’라고 하는 ‘문수봉이깔나무’, ‘릉라도 산벗나무와 전나무’, ‘대성산 목란’, ‘은정배나무’, ‘왕재산참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혁명력사(중학교 제5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2003.

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1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직접 심은 ‘릉라도 산벚나무와 전나무들’이다.

릉라도유원지에는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로 등록된 나무가 있다.

아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손수 심으신 뜻깊은 산벚나무와 전나무들이다.

감희도 새로운 주체 54(1965)년 4월 4일 류달리 날씨가 좋았던 이날에 령라도를 찾으신 아버지수령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내려쫓이는 띄약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래동안 나무를 심으시였다. 그날 너무도 오랜 시간에 흘러 동행한 일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께 이젠 그만 심자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나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모두 함께 나무를 심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왕 심던바에 좀더 심자고 하시면서 땀배인 웃웃을 벗으시고 다시 나무를 심으시였다.

산벚나무와 전나무를 심으신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조국산천을 록음 우거지게 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⁵⁾

동물천연기념물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는 동물’이 천연기념물의 우선적인 대상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보내 준 새로운 종의 동물 가운데서 새로운 종이거나 학술적 의의가 있는 동물, ‘보아주시고 장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동물 중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5) 리광명, 『천연기념물 제1호』, 『천리마』 2003년 12호(천리마사, 2003).

지리·지질 천연기념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념물이 가장 많은 곳은 백두산 일대이다. 백두산 천지, 삼지연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는데, 지정 이유에 대해 “백두산 천지나 삼지연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치도 특이하지만 거기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대로천박물관』으로서의 의의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⁶⁾고 설명한다. 자연적인 경관이나 지리적 의미보다는 혁명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인 개성 은행나무

북한의 천연기념물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제1장 천연기념물과 그 대상」, 『천연기념물편람』(농업출판사, 1994), 11쪽.

[표 6] 북한의 천연기념물 현황

평양시	중구역 화석림, 만경대 백양나무, 무진리 소나무 무리, 능라도 수양버들, 옥류 능수버들, 대성산 두층나무, 대성산 수삼나무, 대성산 향오동나무, 대성산 목란, 문수봉 이깔나무, 고령산 평탄면 등
남포시	강선 포플러나무, 대안 희화나무, 수산리 약밤나무, 우산장 느티나무, 용강 느티나무 등
개성시	송악산 크낙새, 개성 백송, 개성 학, 개성 산당화, 개성 모과나무, 삼거리 느티나무, 개풍 은행나무, 만월대 느티나무, 장풍 느티나무, 개성 희화나무, 판문 탕자나무, 성균관 은행나무, 개성 자목련, 성균관 느티나무, 판문 흰두루미 살이터, 박연폭포 등
평안남도	평안남도 너화, 환승리 청서, 자모산 동물보호구, 맹산 맞주 흑송림, 용강 떡갈나무, 함종 약밤나무, 승백루 갈새, 금성리 검은황새, 북창 느삼나무 군락, 숙천 주염나무, 안국사 은행나무, 율화 소나무, 자산 은행나무, 평원훈련전 은행나무, 은정 배나무, 성천 가지부처손 군락, 양덕 금수목, 용포리 가는잎소나무림, 대흥 수달, 따오기, 덕도 바다새 번식지, 용운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용원 동굴, 월포리 하성단구 등
평안북도	선천 남도 바다새보호구, 철산 책도 바다새보호구, 동림 들메나무, 쑥섬 검은낮저어새, 요하리 나도박달, 묘향산 청조, 상원암 은행나무, 보산 배나무, 향산 비술나무, 묘향산 들메나무, 선주 느티나무, 묘향산 산병나무, 학당 옷나무 무리, 묘향산 소나무, 정주 은행나무, 좌리 전나무, 장송소나무 바람막이숲, 묘향산 두봉화 무리, 묘향산 날다라미, 묵이도 노랑부리 백로번식지, 재비둘기 번식지, 용골 백로왜가리 번식지, 참차도 바다새 번식지, 철산 조갯살이터, 비단섬 코끼리바위, 막대바위, 동림폭포, 거북바위, 상초동굴, 백령대굴, 석주폭포, 용연폭포, 천주석, 천신폭포, 철산군의 검은죽합과 녹조개의 서식지 등

자강도	창덕리 나도박달, 전천 전나무, 오가산 식물보호구, 향토 비술나무, 시중 긴방울 가문비나무 무리, 오가산 신갈나무, 오가산 피나무, 오가산 주목, 전천 돌부채 군락, 강계 은행나무, 용대 만지송, 성하 왕짚광나무, 성간 포플러나무, 가산령 잣나무, 오가산 쉼터 피나무, 오수덕 잣나무림, 용림 큰곰, 노랑 홍모시범나비, 오가산 원양새 살이터, 홍주 달, 와갈봉 조선범, 용수폭포, 성하 김입사행(굽은강) 등
황해남도	황해남도 학, 황해남도 황새, 방현리 백로, 장산곶 식물보호구, 강호 염주나무, 배천 은행나무, 해주 낙우송, 신원 은행나무, 해주 벽오동나무, 송화삼광항나무, 은율 황목련, 평천 느티나무, 신원 쌍둥이느티나무, 연안 은행나무, 안악 느티나무, 석담 느티나무, 웅진 쪽가래나무, 웅진 이팝나무, 과일군 은행나무, 웅진 참김, 해주 설송, 강호 능소화, 장연 조선소, 배천 재두루미 살이터, 사현리 왜가리 번식지, 강령 흰두루미 살이터, 흥현리 백로 살이터, 몽금포 코끼리바위, 장수산 열두릅이, 몽금포 사구, 오차바위 등
황해북도	답동산 식물보호구, 평산 엄나무, 황주 연꽃, 삼전 향나무, 평산 대추나무, 답동산 가침박달나무, 신계 황목련 무리, 입문 소나무, 서흥 가래나무, 봉진 느티나무, 동산리 소나무, 신계 은행나무, 구락리 자라살이터, 구락리 여름치 쉼터 알쓸이터, 남강 쌍절벽 등
강원도	삼방 왕제비꽃, 석현 엄나무, 통천 알섬 바다새보호구, 금강산 금강국수나무, 금강산 금강초롱, 문수리 소나무, 원산 구상나무, 성북느티나무, 원산 칠엽나무, 금수리 소나무, 금강 전나무, 안변 느티나무, 이천 영웅은행나무, 원산 추립프나무, 가재울 은행나무, 두문동 은행나무, 위남리 소나무, 원산금술, 건자리소나무, 판교 전나무, 원상 감나무, 창도 늘어진 소나무, 추애산 조선범, 천아포 고니살이터, 용흥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 대도 백로 왜가리 번식지, 명사십리, 시중호, 국도, 총석정, 금란굴, 천선대, 금강산 닭알바위, 삼일포, 상팔담, 삼선암, 조양포, 비봉포, 십이포, 귀면암, 구룡폭포, 해금상 숲섬, 해금강문, 명경대, 삼방협곡 등

<p>함경 남도</p>	<p>함흥 본궁반송, 조상 사과나무, 곡구리 백리향군락, 이원 팽나무, 두연못 연꽃, 단천 만지송, 용전 사과나무, 동흥산 은행나무, 함흥 반송, 흥남 팽나무, 호남 향나무, 속후 회화나무, 신흥 엄나무, 정평 박태기 잎나무, 금야 은행나무, 가진 소나무, 청백 향나무, 성남 소나무, 대섬 신의대 군락, 중동리 소나무, 배골 소나무, 흥남 구경대, 금야 겨울새 살이터, 정평 백로 살이터, 사철오리, 속사리 강명태 알쓸이터, 장진 정강어 알쓸이터, 서목리 왜가리 번식지, 천불산 사향노루, 단천 산양, 백악폭포, 광포, 흥원술섬, 청도 해식들, 운포동굴, 이원구석, 이원 학사대 등</p>
<p>함경 북도</p>	<p>운만대 신의대 군락, 양정리 제3기 동물화석층, 개심사 약범나무, 함진리 제3기 동물화석층, 관모봉 식물보호구, 동관리 흥적기 동물 화석층, 나진 산벚나무, 웅기군 알섬 바다새보호구, 서수라 산벚나무, 왕재산 참나무, 덕인참나무, 관모봉 장군풀, 포종 소나무, 회령 밤나무, 고진 소나무, 명천 곱향나무 무리, 함진소나무, 학동 소나무, 우암 산벚나무 무리, 명천 오동나무, 화성 전나무 무리, 녹야리 사향노루, 마양 흰족제비, 덕인리 왜가리 번식지, 관모봉 큰곰, 우암 물개, 신양 수달, 보춘 조개 살이터, 해칠보 달문, 해칠보 무지개바위, 해칠보 술섬, 금강봉과 금강굴, 노적봉, 명간 선바위, 무계호, 장연호, 천상수 아흔아홉굴이, 금강산 자연공원, 명천군 복조개 등</p>
<p>량강도</p>	<p>보천보 검은돈, 풍산개, 차일봉 북수백산식물보호구, 백두산 식물보호구, 백암리 부채붓꽃 군락, 후창 조릿대 군락, 후창 느티나무, 갑산 비술나무, 연지봉 소나무, 북포태산 장군풀, 백임 줄곰담초군락, 남포 태산 장군풀, 이명수 패양버들, 누른 돈, 백암 우는토끼, 백암 검은돈, 백암 사슴, 대흥단 메닭, 백두산 조선뱀, 대흥단 산양, 신파 닭, 삼지연 검은돈, 삼지연 메닭, 연지 노랑나비, 신무성 세가닥 딱따구리, 합수 노롱롱 살이터, 남사 사루기 알쓸이터, 누령이, 삼지연 사슴, 연암산 분화구, 이명수 폭포, 삼지연, 백두산 천지, 간장늪 등</p>

기타	<p>산벚나무와 전나무, 장자산 잣나무, 모란봉 전나무와 잣나무, 대성산 미선나무, 금강 국수나무, 왕대황, 두류산 고양나무 고락, 황해도 재령군의 장수 만리화, 사과나무, 3.1밤나무, 두충나무, 산수유, 들쭉나무, 희화나무, 황목련, 백목련, 들메나무, 엄나무, 칠엽수, 백합나무, 큰 부채붓꽃, 산파, 돌부테, 오기산 원시림, 웅진 참김, 내금강 전나무림, 화성 전나무림, 광명 소나무림, 낙우삼, 웅진 왕삼나무, 신계황 목련군락, 삭주 황목련 군락, 백두산 들쭉, 백두산 만병초, 낭림산 맥의 와갈봉 호랑이, 강원도 고성외의 추애산 호랑이, 임명별 황새, 묘향산의 청조, 정장어 산란지, 송어 산란지, 조선파리조개, 자라, 남생이, 세포 조선소, 신파달, 향교골규화목, 강령골뱅이화석, 용궁리 공룡 발자국 화석, 배천온천, 웅진온천, 식덕수, 약수, 묘향산 자연공원, 칠보산 자연공원 등</p>
----	--

출처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안』(2013).

5) 명승지

북한은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학술·교양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을 명승지라고 하며, 주요 명승지는 다음과 같다.

[표 기] 북한의 명승지 현황

백두산혁명사적지, 만경대혁명사적지, 모란봉, 약산동대, 묘향산, 동룡굴, 백령대굴, 구월산, 장수산, 석담구곡, 몽금포, 박연폭포, 삼방협, 금강산, 총성정, 시중호, 칠보산, 주을온천, 백두산, 지리산, 대성산, 용악산, 정방산, 백운산, 관모봉, 오기산, 부전고원, 동흥산, 경암산, 수양산, 자남산, 송악산,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속리산, 가야산, 한나산, 송도원, 명사십리, 마전, 속후, 청단, 기암, 학사대, 와우도, 구미포, 보통강, 능라도, 수풍호, 연풍호, 서흥호, 건륭저수지, 태성호, 용문대굴, 성류굴, 금강굴, 금녕굴 등



강원도 소재 천연기념물인
해금강 삼일포

6)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재)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이라고 한다. 비물질문화유산이 문화재의 보호 대상이 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2000년 이전까지 물질문화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였던 문화정책이 2000년 이후에는 정신문화도 보호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 근거가 된 것은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이다.

‘문화유산’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무형문화재가 포함된다.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영역을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물’과 무형문화재와 정신적 산물이 포함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확장한 것이다. 2012년의 「문화유산보호법」에서 규정한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질문화유산에는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역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전통 및 관습, 각종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요리, 민속놀이 같은것이 속한다.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문화유산을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구분하였다. ‘물질문화유산’은 기존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등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이며, ‘비물질문화유산’은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구체적으로 ‘민속놀이’를 포함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문화유산’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무형문화재가 포함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영역을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물’과 무형문화재와 정신적 산물이 포함된 ‘비물질문화유산’으로 확장한 것이다.



북한의 탈춤



[표 8]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 현황

가야금산조, 강령탈춤, 거문고산조, 농악, 농요, 돈돌라리, 용강기나리, 배뱅이
굿, 법고춤, 봉산탈춤, 북청사자탈놀이, 사승무, 서도소리, 줄타기, 칼춤, 통소
정악, 판소리, 팔목춤, 해금산조, 각자쟁이, 기와쟁이, 놋쇠쟁이, 누비쟁이, 단
청쟁이, 대나무쟁이, 나전칠기, 망건쟁이, 명주까지, 목조각쟁이, 바느질쟁이,
배첩쟁이, 사기쟁이, 소반쟁이, 염색쟁이, 옥쟁이, 옹기쟁이, 인두화쟁이, 자수
쟁이, 작은목쟁이, 전통신발, 전통악기쟁이, 철쟁이, 초물쟁이, 큰목쟁이, 평양
냉면, 함흥냉면, 향토술, 활쟁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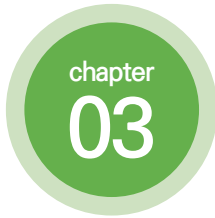
chapter

03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체계

1. 문화재 정책 변천
2. 문화재 정책 특징
 - 1) 계급적 문화재 정책
 - 2) 민족우월주의
 - 3) 배타적 민족문화
 - 4) 고구려 중심주의
 - 5) 평양 중심주의와 대동강문화론
 - 6) 반종교적 문화재 정책
3. 문화재 관리기구
4. 문화재 관리제도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리체계

1. 문화재 정책 변천

북한의 문화재 보호정책이 시작된 것은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훼손된 민족문화를 복원한다는 명분은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정책이었다.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문화재 정책이 출발하였다.

북한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이었다. 문화재와 관련한 최초의 공식 명령은 1946년 4월 29일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명의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

물 보존령」⁷⁾과 시행규칙, 시행수속이 발표되었다. 이후의 문화재 관련 정책은 법이나 명령 같은 제도적인 것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연설, 담화 등)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법이 제정된 것은 1994년이였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법적 체계를 갖추었다. 그 이전까지 문화재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이나 담화 등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식적인 법보다 말씀이나 교시가 우선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실행력을 갖고 있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문건인데, 문화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94년에 제정된 문화재 관련 법령이 「문화유물보호법」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문화재 정책에서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 된 것은 유형 문화재와 역사 유적이였다.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대체되었고, 다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끝에 2015년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형문화재에서 제한되었던 보호대상에 무형문화재(「문화유산보호법」)와 천연기념물(「민족유산보호법」)을 포함되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은 문화재 관련 규정

7)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은 전문 11조로 구성되었다. 11조의 보존령 가운데 위원장과 관련된 것이 모둔 8조에 해당하며 나머지 3개조항은 벌칙에 관한 것이다. 1조부터 8조까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관련한 사항은 ① 보물 및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② 문화유물의 이전에 대한 권한, ③ 변형 및 보전관련, ④ 시설설치, ⑤ 변형, ⑥ 지정해제, ⑦ 발굴조사 감독, ⑧ 관리감독권의 일부 위임 등이다.

이 보완되면서, 남한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보호 대상과 유사해졌다.



북한 국보유적 1호 평양성 표지

2. 문화재 정책 특징

1) 계급적 문화재 정책

북한의 문화재 보호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혁명성이다. 문화재 정책 역시 정치적인 영향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책이 담화나 말씀 같은 현지도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문화재와 관련한 최초의 법이 제정된 것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다. 48년 동안 문화재와 관련한 내용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민족문화 중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가 모두 최고지도자의 말에 따라 결정되었다.

북한 문화재 정책의 기본은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1949년 10월 15일의 김일성의 교시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후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유지된 원칙이다. 김일성은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핵심이 인민 교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현지도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유산 가운데서 대표적이고 교양적 의의가 있는 것부터 복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일성이 제시한 민족문화 수용의 이 원칙은 이후 김정일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교양적 의의는 주체사상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재를 발굴·복원하는 원칙은 당성, 계급성이다. 북한이 문화재 보호정책에서 계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화란 “문화를 생성한 계급의 관점과 이익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는 필연적으로 계급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서 계급성은 “인류역사가 계급사회에 접어든 이후 모든 문학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문화는 필연적으로 한 계급의 입장을 대변, 지지, 옹호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족문화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입장이 계급성을 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민족문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계급에 의해 건설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⁸⁾ 계급에 따라서 민족문화의 성격이 달라지기에 북한의 민족문화는 당연히 계급도 북한에서의 민족문화 건설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적 내용을 따라야 하고, 이는 노동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입각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항일혁명 투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교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2) 민족우월주의

북한의 문화재 정책의 핵심은 민족우월주의이다. 문화재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알지 못하면 ‘민족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나라를 쳐다보면서 숭배하는 사대주의병에

8) 부르주아 지배하의 민족문화는 “민족주의 독소로써 대중을 중독시키며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공고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 내용에 있어서 부르주아적이며 형식에 있어 민족적인 문화라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하에서의 민족문화는 사회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려는 목적을 가진,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에 있어 민족적인 문화”가 된다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문예정책과 해방후 문학』(과학원출판사, 1961), 53쪽.

걸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민족문화유산을 무시하는 허무주의적 태도가 우리의 주체사상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민족 허무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 북한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연결된다.

허무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거의 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복고주의에 대한 경계도 강조한다. 과거의 유산을 무턱대고 부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맞게 민족문화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다.⁹⁾ 계급적 입장에서 비판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라는 것이다.

북한이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반제국주의 교양을 위해서이다. 문화에는 필연적으로 계급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 문화라는 것은 현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문화적인 침투를 위해 사용하는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다. 주체사상이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이듯이 북한의 문화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화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문화교류보다는 북한식의 문화체계를 고수하고자 한다.

9)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 및 문학예술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5(1970.1-1970.12)』(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7쪽.



고려태조왕건릉

3) 배타적 민족문화

북한의 문화재 정책에서 배타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정책으로 보인다. 민족문화가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배타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은 민족문화가 ‘자주를 기본으로 반외세의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로 이어오면서, 애국주의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민족문화를 외세의 문화적 침투에 맞서는 정치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민족문화를 잘 아는 것 자체를 혁명가의 중요한 의무의 하나로 규정할 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도, 문화의 보편성을 거부한다. 문화는 민족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문화의 보편성, 문화의 세계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현대 부르조아 이론가들의 ‘반동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고 그 나라들을 내

부로부터 와해시켜 저들의 지배와 통제밑에 얽어매려는 수단”¹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교류나 보편적 문화라는 인식은 외부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허용하는 행위가 된다. 문화의 민족성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곧 문화가 또 다른 형식의 정치가 된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식 윗놀이

4) 고구려 중심주의

북한의 문화재 정책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은 고구려이다. 삼국시대를 평가하면서도 고구려가 제일 강한 나라였고, 우리 나라가 역사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이주민들이 한반도 남쪽에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을 이루었고, 신라와 백제를 건설했다고 주장한다.¹¹⁾

10)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자」, 1999년 6월 1일.

11) 리원희, 「5세기초이전 고구려-신라 관계에 대하여」, 『역사과학』 2009년 3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고구려 문화를 민족문화의 정통으로 놓고 고구려와 관련된 연구와 발굴, 복원작업으로부터 문화재 보호 사업을 시작하였다. 고구려 유적지인 대성산을 중심으로 한 유적 발굴을 강조하였다. 대성산성을 비롯하여 안학궁터가 있는 대성산 일대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이 산재한 곳으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곳이다. 대성산성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에 있는 고구려 산성으로 3-5세기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학궁은 평양시 대성산 남쪽 기슭에 있는 궁궐이다. 고구려가 5세기 초엽 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기면서 세운 궁궐로 고구려왕이 평시에 기거하던 곳이다.

북한은 민족사의 중심을 고구려에 두고 있다. 고조선을 시작으로 고구려, 발해, 고려를 민족사의 정통으로 인정한다. 조선시대에는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사회’로 규정한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은 문화재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동명왕릉 개건 기념비

2009) 참고.

평양의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고구려 문화유산들이 중국 집안의 고구려 유산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고구려 문화에 대한 보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 문화재 보호에 나선 기관은 문화보존지도국이다. 문화보존지도국은 2004년 개성시와 평양시 일대의 역사 유적과 고인돌 무덤, 금강산 등 6개소를 세계유산 임시목록에 기재해 유네스코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책적인 지원도 이어졌다. 벽화 무덤에 관한 학술 연구를 비롯, 보존과 관련한 기술 연구,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 대외 선전사업 등을 담당할 고구려벽화무덤보존센터를 2004년 6월 15일 착공할 정도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한 보존과 연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북한의 고구려, 고려 중심주의적인 문화재 정책은 북한의 사적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사적 현황을 보면 시기로는 고구려, 지역으로는 평양의 유적이 가장 많다.



남포시 소재 강서대묘 현실 북벽의 현무

5) 평양 중심주의와 대동강문화론

북한의 문화재 정책에서 주목되는 특징의 하나로 평양 중심주의가 있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기에 문화유적이 많이 있다는 차원을 넘어 평양을 강조한다. 평양은 ‘일찍부터 문화가 찬란히 발전한 도시’, ‘인류발생지 중의 하나’로 규정한다.

평양은 인류발생지의 하나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있으며 수도로서의 력사가 개척된지도 1560년이 된다. 오늘 평양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로서 훌륭하게 꾸러졌다. 오늘 평양은 우리 인민들이 것처럼 사랑하고 세계 수많은 혁명적 인민들이 동경하며 찾아오는 혁명의 수도이며 우리 주체조국의 심장부로 번영하고 있다.¹²⁾



고구려고분을 재현한 모형

대성산 일대의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발굴 할 것을 지시한 것은 유적지에 대한 복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역사도시로서 평양의 문화재를 발굴하자는 의미와 함께 혁명의 수도로서 평양의 역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적지 발굴은 북한에서 강조하는 혁명의 수도로서 평양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평양의 정통성을 빌어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것이다. 고구려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대성산에는 ‘혁명렬사릉’이 있는 곳이다. 대성산을 대대적으로 유지·보수 하면서, 동시에 ‘혁명렬사릉’을 안치하게 되면서 민족의

12) 장상렬, 「평양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의 도시」, 『천리마』 1989년 11호(천리마사, 1989).

역사적 전통과 혁명적 전통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6) 반종교적 문화재 정책

북한에서는 종교에 대해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 민족문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종교와 관련된 것이나 궁중문화에 대해서는 계급성을 이유로 인민 교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동명왕릉의 발굴 복원사업을 지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릉사의 복원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릉사의 복원은 동명왕릉의 복원을 위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즉 동명왕릉을 복원하면서, 동명왕릉 인근에 있었던 정릉사를 함께 복원하여 동명왕릉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불교 유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종교유산들도 인민의 교양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일성은 1949년 10월 15일에 있었던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인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에서도 불교유적이 산재한 묘향산의 유적들도 인민이 “불교의 허위성과 증들의 교활성을 깨닫도록 하며 낡고 부패한 착취제도를 증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¹³⁾

13)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저작집 5(1949.1-1950.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83-284쪽.

종교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2000년 이후 다소 변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남북교류의 영향과 함께 ‘조선민족제일주의’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종교 문화에 대한 수용의 폭을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와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정통화 과정을 명분으로 종교 문화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족자주 등의 구호가 적힌
등이 달린 북한 사찰

3. 문화재 관리기구

북한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핵심 기관은 노동당이다. 북한에서 문화재 관리의 정점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있다. 노동당 선전선동부2부에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선전선동부의 지도를 받아 내각의 문화성 산하 문화보존지도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문화보존지도국은 남한의 문화재청에 준하는 기구로 산하에 박물관, 건

설 및 보존처, 천연기념물 지도처, 지방의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및 전임 관리기관인 문화유적관리소를 관할한다. 구체적인 실행은 각 도·시·군 문화 유적관리소에서 실행한다. 산하에 문화보존연구소가 있다. 문화보존연구소는 문화유물유적들과 천연기념물들을 보존, 관리하는 과학연구기관이다.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발전과 관련한 해설선전사업, 전국의 역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평가하면서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다.¹⁴⁾

문화재와 관련한 기관으로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등의 박물관과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등이 있다. 사회과학원은 연구기관으로 민속학연구소, 민족고전연구소, 언어학연구소, 역사연구소 등에서 문화재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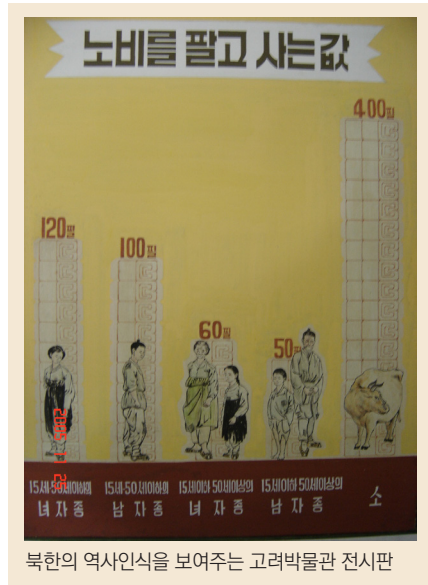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박물관은 역사, 민속, 예술, 산업,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 문화·교양적 또는 학술적 의의가 깊은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는 상설기관으로 정의한다.¹⁵⁾ 북한의 박물관은 취급하는 자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부문별 전문박물관으로 또는 계통별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조선민속박물관을 포함한 역사계통박물관, 지질계통박물관, 식물학계통박물관, 동물학계통박물관과 관련된다.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박물관인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원시시대부터 근세에 이르는 역사적 유물들을 19개 전시실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크게 원시사회(원시군, 모계씨족사회, 부계씨족사회), 노예사회(고조선), 봉건사회

14) 송승섭, 『북한자료의 수집과 활용』(한국학술정보, 2011), 239쪽.

15) 박영정 외, 『북한의 문화시설에 관한 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83쪽.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세사회의 순서로 진열되어 있으며, 총 10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재 관련 기관으로 는 각 시·도의 문화유적 관리 기관이 있다. 주요 지역 기관으로 는 개성시문화유적관리소, 개성시왕건왕릉문화유적관리소, 동명왕릉문화유적관리소, 자강도 문화유적관리소, 평안남도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 평안북도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 평양시 문화유적관리소, 함경북도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 황해북도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 문화예술사적관 등이 있다.



4. 문화재 관리제도

북한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법으로는 「민족유산보호법」이 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은 2015년 7월에 제정된 법으로 총 6장 6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이다.

이들 보호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였다. ‘역사유적보호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새로 세우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민족유산 보호기관의 합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공사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고한 다음 발굴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¹⁶⁾

2015년의 「민족유산보호법」에는 특징적으로 세계문화유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법제상 처음으로 세계유산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였다.¹⁷⁾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적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보호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역사유적보호구역’에서는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승인없이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오수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짐짐승을 방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16) “역사유적보호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과 관련한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지역 민족유산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건설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해당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과정에 민족유산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알리며 민족유산을 발굴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17)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표 9] 북한의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시기	내용
2004.	고구려고분군
2013.	개성역사유적지구



[표 10] 북한의 문화재 발굴·관리 주요 일지

시기	주요 내용
1949.	안악고분 발굴
1961.	안학궁과 대성산 일대에 대한 발굴사업 실시
1963.	중국 요녕성 지역의 고조선과 고구려 유적 발굴 위한 조·중공동 고고학발굴대 구성 및 조사 (북중협력)
1963.04.	굴포리 구석기 유적 발굴 시작
1967.	“역사연구실과 혁명전통을 잘 꾸리고 공부하라”는 노동당 제15차 대회 결의에 따라 김일성 일가의 혁명 사적지와 전적지 조성 사업 강력 추진
1970년대	상원 용곡동굴유적, 황해도 냉천동굴, 독재굴, 화천동굴 발굴
1974.	동명왕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발굴작업 진행

1990년대 초	대동강 문화권의 설정: 평양일대의 14,000여 기의 고인돌 무덤 발굴
1993.	평양시 강동군 남강노동자구 황대마을 앞에서 약 5,000년 전의 황대석 발굴,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 토성,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토성, 평양시 대성구역 청암동 토성, 평양성 등지의 현재 남아있는 성벽 밑에서 단군조선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성벽들 발견
1993.01.~02.	단군릉 발굴 사업
1993.05.14.	동명왕릉 개축
1993.05.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남북협력)
1994.02.01.	고려 태조왕릉 복원
1994.04.22.	문화성이 연광정(평양), 인풍루(자강도 강계시), 백상루(평안남도 안주시)를 집중 정비. 성불사의 응진전과 강서대묘 등도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1994.01.	단군릉 개축
1994.11.	단군릉 발굴
1997.	대동강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석구역 유적의 단군조선초기 집 자리들에서 벼와 콩 발굴
1997.07.	신포시 가마터 발굴
1998.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에서 연차사업으로 청파대동굴유적 발굴
1999.05.16.	개성시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가 만월대·선죽교·공민왕릉·표충비각 등 많은 유적을 보수 관리하고 설명문과 표지주 보색과 주변 조경사업
2000.	황해도 연탄지역 중심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유적 집중 조사
2000.	통군정·만월대 등 보수공사
2000.03.03.	개성시 문화유적관리소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묘(판문군 전재리)를 조선시대 매장풍습에 맞게 복원, 주변정리 조선시대 명기 황진이(판문군 선적리)의 묘 원상태로 복구

2000.09.21.	안학궁(평양, 고구려시대 왕궁) 복원설계 완료, 복구공사 착공 계획
2000.11.07. .	개성시가 역사문화유적들에 대한 관리와 보수사업에 주력 송양서원 보수, 단청작업, 토양처리. 석축공사, 구내정리
2001.09.05.	개성시 선죽교·표충비·남대문·송양서원·목청전 등 100 여개의 역사유물에 대한 석축공사와 도로 녹지정리 등 보존관리사업
2001.09.16.	소현서원(황해남도 벽성군 소재) 보수 및 영통사(개성시 소재 고 려 시대 사찰) 재건공사 추진
2001.10.31.	대동문·보통문·연광정 등의 문화유적들에 대한 보수·정비사 업 및 모든 유적들의 해설문판을 천연 돌로 교체하는 작업(보통 문 단청, 을밀대 등 모란봉 유적들 색칠작업) 실시

출처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2013).



chapter

04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1.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의 역사
 - 1) 2000년 이전
 - 2) 2000년 이후
2.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기구
3.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 1) 학술대회 및 공동연구
 - 2) 공동 전시
 - 3) 문화재 발굴, 복원
 - 4) 남북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



chapter
04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남북 사이에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협력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 사이에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 보존과 관리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제한되어 있으며, 발굴 장비나 보존장비도 열악하다. 국제적인 수준의 관리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남북의 문화재 협력사업은 남한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문화재 분야의 교류는 민족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협력하여 온전하게 발굴, 보존하여 그 가치를 체계화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민족문화의 자산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문화협력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이라는 목표와도 맞는 사업이다.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사업은 교류를 넘어, 문화를 통한 통일의식 제고, 이질성 극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문화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남북 문화교류의 보편적 규범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족 공동의 문화자산 보호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 일제 강점기 약탈 문화재 반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남북의 문화재 협력사업은 민족문화에 대한 온전한 복원과 문화민족으로서의 가치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은 범국민적 통일 의식 제고, 통일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묘향산 보현사에 있는
팔만대장경보존고

1. 남북 민족문화유산 교류의 역사

1) 2000년 이전

남북 사이에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2년이였다.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1972년 7월 4일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를 발표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 제3장 남북교류·협력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어 1972년 11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3항에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합의하였다.

남북 사이에 구체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1985년이였다. 광복 40년이 지난 1985년 남북 사이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통해 서울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의 상호 방문 공연이 있었다. 1985년 9월 21~22일 양일간 평양(평양대극장)과 서울(국립중앙극장)에서 서울예술단과 평양예술단이 각 2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연 이후 남북의 평가는 부정적이였다. 북한은 “북고주의적이고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풍화되어 퇴폐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북한 공연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였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전통을 훼손하여 국적불명의 예술이 되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 문화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였다.



만월대 출토유물(고려박물관)

남북 사이에 민족문화유산보호와 관련한 협력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였다. 1992년 5월 7일에 있었던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2항에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한다.”고 합의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학자들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민족공동문화자산 관련 국제학술토론회에 남북이 참가하면서 교류의 장이 열렸다. 1993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1차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를 시작으로 1994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동아시아 원시·고대문명의 재발견 학술회의’, 1997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에서 남북 학자들이 만남이 있었다.



발해석등 모형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언론사들의 답사와 정보화 사업 등 북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1997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앙일보에서는 북한 문화유적 답사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어 1998년 8월 경향신문의 ‘북한 문화재자료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협력을 통해 1999년 개성 영통사발 굴복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문화재 협력사업은 보다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진행된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문화재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개성 만월대 발굴·복원사업’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과 함께 남북교류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의 교류가 전개되었다. 2003년 7월 12일에 있었던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민족문화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10월 4일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6항에서는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4선언 이행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

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복원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족문화유산 분야의 교류는 크게 역사 관련 학술연구 조사 사업과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종교학술교류 사업이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고구려, 일제강점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불교와 관련한 학술대회가 많았다. 고구려에 대한 연구는 지리적으로 북한에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는 남북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남북은 같은 민족으로 반만년의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남북의 상이한 역사의식과 역사관의 차이 때문에 남북이 합의하여 연구할 수 있는 공통의 역사공간이 고구려와 일제 강점기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구려와 관련한 사업이 많았다. 고구려와 관련한 남북교류 사업으로는 ‘고구려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등재 기념 남북공동전시회’, ‘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전시회’, ‘평양 안학궁터 남북공동발굴사업’, ‘고구려 벽화 고분 남북공동조사’,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등이 있다.

종교 관련 문화재 교류는 특히 불사 복원사업이 주목된다. 초기 문화재 교류사업을 주도한 것은 불교계였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불사를 복원하는



왕건좌상(개성 만월대 발굴 자료 전시회에서)

사업은 불교교류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전통 사찰건축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역사 문화재 복원에 대한 남북교류의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 나아가 불사 복원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민간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불교교류 활성화는 물론 화해협력과 신뢰형성에 기여하였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사업의 경우 2004년 11월 대웅전 낙성식에 이어 2006년 11월 10개 전각을 복원하고, 2007년 10월 13일 남북공동으로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10월 31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천태종은 영통사 복원 낙성식과 함께 남북의 불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공동으로 천태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서 2007년에는 약 4,000여 명의 불자들이 영통사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복원 후 2년여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성지순례를 실시하였다. 불교 문화재의 교류는 남북교류에서 인적 교류의 폭을 넓힌 사례가 되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

북한의 문화재 관리 사업 및 남북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문화재 관련 남북협력사업 주요 일지

시기	주요 내용
1993.05.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
1999.	영통사 복원 시작
2001.11.02.~11.10.	신계사지 지표조사
2003.10.27. .	영통사 발굴·복원 지원사업 시작
2003.08.05.~12.	법운암 대웅전의 개금작업
2003.08.05.~29.	법운암 대웅전의 단청작업
2003.11.09.~25.	신계사 대웅전지, 탑 주변, 만세루지 일괄조사
2004.06.24.~07.31.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사업지역에서 개발대상인 약 100만평에 대해 문화재 지표·시굴·발굴조사 실시
2004.04.06.	금강산 4대사찰 가운데 하나인 신계사 복원사업 착공식
2004.08.03.~25.	신계사 만세루지, 탑주변조사
2005.07.20.~29.	평양일대 벽화무덤 등 고구려 관련 유적의 조사 진행: 진파리 고분군,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리 벽화무덤, 강서 삼묘, 안악3호분, 태성리3호분, 대성산성, 평양성, 백두산 정계비의 원위치
2005.05.03.~31.	신계사2구역 4,500㎡, 최승전터 900㎡조사
2005.3.29.	영통사 복원불사 낙성식
2006.04.08~19.	안학궁의 성벽, 건물터, 무덤, 출토유물(기와)조사, 측량조사
2006.04.19.~05.02.	북한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
2006.04.04.	신계사 대웅보전·만세루·최승전·산신각 단청불사 시작

2006.06.02.	신계사 극락전·축성전·칠성각·종각·나한전·어실각(문) 복원 불사 시작
2006.08.11.~09.08.	신계사 2구역 수승전 추정지역 840㎡
2006.09.02.	신계사 극락전 상량식
2006.11.19.	신계사 대웅전·만세루·요사채 등 복원·낙성식
2007.03.20.~04.01.	신계사 3구역, 6구역 11,226㎡
2007.04.20.	신계사 극락전·축성전·칠성각·나한전·어실각(문)·수승전·화장실·창고·수각 등 건물에 대한 단청불사 시작
2007.05.30.~06.09.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남북공동의 보존사업 실시: 평양 인근 진파리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 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2007.05.15.~07.13.	제1차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고려궁궐 약40여 동의 건물지, 5,000여 점의 유물출토, 출토유물의 3D촬영 등 자료구축, 수장시설 조성, 만월대 출토 청자를 통한 생산지 검증
2007.08.01.~10.13.	신계사 수각·석축 등의 공사, 불상봉안 및 탕화·범종·현판 및 주련설치 등 장엄불사 시행, 복원 준공식
2007.09.09.~11.13	제2차 만월대 발굴조사
2008.11.04.~12.23.	제3차 만월대 발굴조사
2010.03.23.~06.10.	제4차 만월대 발굴조사
2011.11.14.~12.20.	만월대 복구조사
2013.11.22.	개성 만월대 우리측 관계자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2014.7.22.~8.16	개성 만월대 현장 조사
2015.6.1.~11.30.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조사
2015.10.14.~11.6.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복원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개성(2015.10.15.~11.15.)과 서울에서 공동으로 전시회 개최

출처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방안」(2013).
및 최근 자료 추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현장

2.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기구

민족문화유산 분야의 교류를 주도한 것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였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1년부터 남북역사학교류 활성화와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학·고고학·미술사학·민속학·정치학 등 민족공동문화자산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1년부터 4년 간 4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남북 공동학술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공동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이후 구체적인 협의기구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4년 2월 28일 평양에서 개최된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에서 남북은 민족사와 관련한 공동의 역사 연구와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결성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측

위원회와 북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공동학술 단체로는 분단 이후 최초이다.

‘고구려연구재단’도 중요한 협력단체이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6년부터 평양 안학궁터 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발굴사업’을, 2006년과 2007년에는 고구려고분군에 대한 ‘남북공동실태조사 및 보존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안학궁 남궁 1호궁전터에서
출토된 기와

한편 북한의 문화재 관련 기관으로는 남북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총괄기구와 전문 분야별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로 나눌 수 있다. 남북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으로는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민족화해협의회(북측 민화협)이 대표적이다. 이중에서도 문화재와 관련한 사업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원래의 명칭보다는 약칭인 ‘아태’로 알

려진 단체로 대외적으로는 학술교류 및 남북협력사업을 담당한다. 아태가 관여한 주요 사업으로는 1995년 4월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행사 주관 을 시작으로 리틀엔젤스 평양 공연 실현(1998년 5월), 현대그룹의 협상 파트너로서 정주영 명예회장 소떼 방북(1998년 6월), 금강산관광사업 주관, 2000년 개성공단 개발 사업 등이 있다.

2000년 6월 15일 이후부터는 북측 민화협이 담당하고 있다. 북측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에 결성된 단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주도한다. 종교, 문화계 등 각종 민간단체 인사들의 대북 접촉 창구로서 역할이 크다. 2004년 이후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남북 사회, 문화, 학술, 시민단체, 체육, 종교, 지자체, 방송, 언론 교류를 담당하여 각종 방북 공연, 남한 언론사의 대북사업,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 광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하여 남북 사이의 대부분 문화교류 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기관이다. 그 외 문화재와 관련한 기관으로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원 산하의 민속학연구소, 민족고전연구소, 언어학연구소, 역사연구소 등이 있다.



인민대학습당에 보관중인
고전문헌들

3.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1) 학술대회 및 공동연구

민족문화유산과 관련한 남북협력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학술분야였다. 남한의 단군학회소속 역사학자들과 조선역사학회는 1998년부터 고조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고대사 분야와 관련한 학술교류는 2002년부터 진행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와 단군학술토론회’가 있다. 개천절 남북공동행사와 단군학술토론회는 남한에서 천도교 등 민족종교가 참여하고, 북한에서는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주최하여 진행한다. 2005년에 「단군과 고조선 연구」라는 단행본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2002년 10월 3일 개최된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학술대회로는 2003년 10월 2일 개최된 ‘제2차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2004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2004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200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200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남·북·러 3국 공동학술회의’ 등이 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조선향토대백과』 공동편찬사업이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 고분군

2) 공동 전시

역사적 특성으로 북한 지역에 있는 고구려 관련 유물이나 고조선 관련 유물 등은 남한에서 접할 수 없기에 북한 지역의 문화재를 남한에서 전시하는 전시사업은 관심 사항의 하나였다. 특히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유물 전시 행사는 남북 문화재 교류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북한 소재 고구려 유물 전시는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남북 간 문화 교류 아이템으로 진행되어 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서울에서 ‘남북공동기획, 고구려전’을 통해 북한에서 제작한 고구려 유물 모사품을 전시하였다. 2004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고구려고분군 세계 문화유산 등재기념 남북공동 전시회’가 금강산에서 있었다. 전시회에서는 고구려 고분 15기의 벽화 사진 70점이 전시되었고, 남북 역사학자 및 전문가 189명이 방북하여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에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및 북한 위원회는 2005년 공동으로 서울에서 ‘고구려유물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외의 문화재 전시 사업으로는 2002년 12월 6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개최된 ‘특별기획전 고구려!’, 2004년 4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최된 ‘우리의 땅, 살아오는 고구려’,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고구려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남측순회 사진전시회’,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조국광복 60돌 기념 고구려유물 전시회’,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 등이 있다. 2015년에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복원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개성과 서울에서 공동으로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3) 문화재 발굴·복원

(1) 불교문화재 협력

불교계에서는 전통 사찰에 대한 단청복원사업을 비롯하여 신계사 발굴·

복원 사업, 영통사 발굴·복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2003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법운암 대웅전의 개금작업이 진행되는데 이어서 2003년 8월 5일부터 29일까지 법운암 대웅전의 단청작업이 진행되었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계사지 지표조사가 시작되었고, 2003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는 신계사 대웅전지, 탑 주변, 만세루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데 이어서 2004년 4월 6일까지 금강산 4대사찰 가운데 하나인 신계사 복원사업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2004년 8월 3일부터 25일까지 신계사 만세루지, 탑주변조사가 이루어졌다. 2005년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계사 2구역 4,500㎡, 최승전터 900㎡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6년 4월 4일까지 신계사 대응보전·만세루·최승전·산신각 단청불사 시작으로 2006년 6월 2일까지 신계사 극락전·축성전·칠성각·종각·나한전·어실각(문) 복원불사 시작되었고, 2006년 9월 2일까지 신계사 극락전 상량식, 2006년 11월 19일까지 신계사 대웅전·만세루·요사채 등 복원·낙성식이 있었다. 2007년 4월 20일까지 신계사 극락전·축성전·칠성각·나한전·어실각(문)·수승전·화장실·창고·수각 등 건물에 대한 단청불사가 시작되었다. 2007년 8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계사 수각·석축 등의 공사, 불상봉안 및 탕화·범존·현판 및 주련설치 등 장엄불사 시행되었고, 신계사 복원 준공식도 열렸다.

영통사 발굴·복원 사업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05년 3월 29일 영통사 복원불사 낙성식이 열렸다.

북한 지역의 주요 불교유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 북한의 불교유물 현황

영강칠년명금동광배, 금동광배, 소조불상범, 청동보살상, 금동불입상, 금동아미타불입상, 태조왕건상, 금동지장보살상과 돌함, 금동십일면팔비관음보살입상, 금동십일면관음보살좌상, 금동불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아미타불삼존불상, 금동불상과불감, 금동역사상부조, 청동탄생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불감, 청동나한상,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엽형장식, 금동탑형장식, 대자사 범종, 금사사 범종, 금강령, 금동주자, 주자문짝 사천왕상, 금동명문판, 보현사서서산대사부도, 보현사부도군, 보현사서서산대사비, 보현사향불탑비, 보현사증건비 등



북한에 있는 대표사찰인
묘향산 보현사

(2) 개성 만월대 발굴·복원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7년이었다. 2007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

의 민족화해협의회 주관으로, 문화재연구소와 발굴전문기관·대학관계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10여 명의 조사단과 북한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5월 15일 개토제에 이어 2개월간에 걸쳐 만월대 유적의 서북지구(약 1만 평)를 대상으로 유구의 분포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고려궁궐 약40여 동의 건물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5,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3D촬영 등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수장시설 조성, 만월대 출토 청자를 통한 생산지 검증이 이루어졌다. 2007년 9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2차 만월대 발굴조사, 2008년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제3차 만월대 발굴조사, 2010년 3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4차 만월대 발굴조사,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만월대 복구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발굴조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2015년에는 최장기 기간인 180일 동안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개성 만월대 발굴 복원의 성과를 전시하는 전시회도 열렸다. 성과에 힘입어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2016년부터는 연중 상시 공동 발굴조사 실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2015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출토유물 전시회 북측 전시장
(개성 성균관) 테이프커팅

(3) 고구려 유적 조사

2005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평양일대 벽화무덤 등 고구려 관련 유적의 조사 진행되었다. 유적 조사 대상은 진파리 고분군,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리 벽화무덤, 강서 삼묘, 안악3호분, 태성리3호분, 대성산성, 평양성, 백두산 정계비의 원위치 등이었다.

200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평양에서 ‘안학궁터 남북공동발굴사업’을 벌였다. 안학궁의 성벽, 건물터, 무덤, 출토유물(기와)조사, 측량조사가 실시되었다. 서울시와 고구려연구재단이 추진하여 남측 고구려연구재단 실무자와 고구려 전문가 등 19명,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문물보존국 전문가 등 15명이 공동 발굴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공동 발굴 조사 결과 이곳이 고구려 시대에 처음 축조된 왕성으로 평양 대성산성이나 평양성과 마찬가지로 사각추 모양의 석재를 이용하여 ‘들여쌓기’ 방식으로 축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는 평양에서 ‘고구려 벽화 고분 남북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 벽화 고분에 대해 벽화의 안료 분석, 고분의 침하 원인 조사, 미생물 번식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사업을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 전문인력과 관계 학자 20명과 이에 상당하는 북한 연구자가 참여하여, 동명왕릉, 진파리 1·4호분, 호남리 사신총, 강서대묘와 중묘, 덕흥리고분, 수산리고분, 용강대총, 쌍영총의 벽화 고분 등 전체 16기 중 9기를 조사하였다. 이 중 진파리 4호분, 호남리 사신총, 용강대총, 쌍영총 등 4기의 고분은 남측 학자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었다.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남북공동의 보존사업 실시되었다. 평양 인근 진파리1호분, 4호분 등 훼손이 심한 고구려 벽화의 보존 작업을 공동 실시했으며, 보존과학 인력 및 관련 학자로 구성된 10여 명의 남측 조사단과 북한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회벽 탈락방지, 오염물 세척, 훼손상태 정밀기록 작업과 함께 벽화 모니터용 환경측정기기가 설치되었다.



안악 3호분 서측실
서벽 묘주와 신하 전경

(4) 개성공업지구 문화재 조사

개성공업지구 문화재 조사 사업은 개공공업지구의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공단지역 내의 문화재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2004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사업 지역에서 개발 대상인 약 100만평에 대한 문화재 지표·시굴·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5) 일본 소재 약탈문화재 남북공동반환

2005년 10월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협력으로 일본 소재 약탈문화재 공동 반환사업이 추진되어 북관대첩비 반환이 성사되었다.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 장군이 지휘하는 의병들이 육지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을 격퇴시킨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 35년(1709년)에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리(현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동)에 세운 승전비이다.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강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었다. 한국 초산스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반환이 성사되었다. ‘북관대첩비 반환’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남북이 합의해서 공식 루트를 통해 반환을 요구하면 조건없이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초산스님은 북한의



일본 동경 우에노박물관 한국실에 전시중인 약탈문화재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하여 “북관대첩비를 반환받아 본래 있던 자리인 함경북도에 복원하고 관련 행사는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공식적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마침내 100년 만에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4) 남북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

남북의 분단 상태가 70여년을 넘게 지속되어 오는 동안 우리는 북한과의 이념 및 체제 대립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적 정착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그 중에서도 민족문화유산 보호는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문화를 통한 통일의식 제고, 이질성 극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남북은 긴장국면 속에서도 민족문화 교류를 통하여, 상징적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족문화유산 분야의 교류는 남북 문화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하였고, 남북교류의 현장에서 남북의 소통통로를 만들어 왔다. 북한 문화 전문가로 하여금 남한 사회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남북 문화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남북 문화교류의 보편적 규범의 인식을 개선하였으며, 민족공동 문화자산의 보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일제 강점기 역사문제에 대하여 남북이 공동 대응하게 하였다.

반면,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남북 사이에 진행된 문화교류는 독자성

및 지속성이 부족하고 문화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하였다. 남북 사이의 불안정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와 시행착오도 많았다. 문화 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적 호응과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최근 새로운 계약과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조차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결국 문화교류의 안정적인 채널을 갖지 못하였다. 전문가의 참여도 제한되었으며 장기적 전략과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이벤트성 사업,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새롭게 개건한 동명왕릉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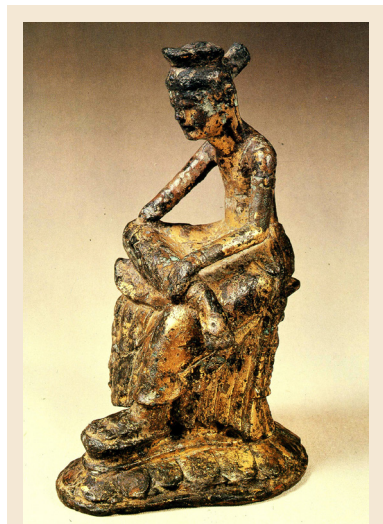




chapter
05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북한의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는 북한 지역에 소재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 구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준다는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북한의 민족문화유산 보호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보존 노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민족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 분단의 역사도 통일을 향한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금동미륵반가사유상(평양시 평천구역)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성숙한 역사관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남북의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자산도 상당하다. 이를 온전히 발굴하고, 조사·보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소재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를 하고, 이를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북한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공동의 협력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족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나 연구 성과는 한국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북한 지역의 연구를 심화하는데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축적과 함께 남북교류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여, 통합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기획단계부터 적극적인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의 우수한 문화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민족공동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민족문화를 자국내 소수민족문화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의 국적을 분명히 하고, 민족문화로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다. 민족문화로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문화재의 문제는 특정한 유적이나 유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족의 삶과 연관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복원할 수도 없고, 공장에서 생산할 수도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보다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교류협력의 지속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민족공동문화자산 교류협력사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 사이의 문화재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인 개성 만월대발굴조사 사업은 2007년 이후 진행된 남북공동발굴조사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매년 평균 2개

월 정도 실시되었으며, 문화재의 경우 발굴을 시작하면 훼손이 시작되므로, 유적의 훼손 우려가 크고 조사의 연속성, 효율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구려고분벽화 모사도

둘째, 문화적·학술적 성과 축적과 확산이 필요하다.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족문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특정한 분야를 넘어선 협력사업으로서 성과를 축적하고, 이를 범국민적 사업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 첨성대(개성 만월대)

셋째, 장기적 비전을 갖고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현실에 맞는 적절한 교류사업

개발,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 필요하다. 남북 문화교류는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 따라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영역이다. 현재 남북의 문화교류 관련 인력은 소수이며, 연구 환경도 쉽지 않다.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 절차나 준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역량을 같은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문화재 분야는 남북관계 전문성과 현장의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조사와 발굴·보존에 전문적인 장비가 투입된다. 유물들에 대한 발굴조사, 보존처리 등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3D스캐너, 광파측정기,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첨단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와 북한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의 관리가 필요하다.



국보유적 현화사7층탑

넷째, 남북문화재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향후 문화재 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협력사업의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문화유산 분야의 경우에는 사업현장이 휴전선 이북에 있다. 사업 이외의 변수가 작동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남북관

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남북 학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전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 부처에서 통일관련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인력의 전문화이다. 남북교류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교류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의미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구려 건국을 소재로 한 역사화



참고문헌





참고문헌

『천연기념물편람』, 농업출판사, 1994.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공동 문화자산 교류협력 추진방안』, 2013.

고영환, 『우리 민족 제일주의론』, 평양출판사, 1989.

김응환·전영선, 「북한의 문화유산관리에 대한 연구-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2집, 한국민족학회, 1997.

김일성, 「역사 유적과 유물 보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6일」, 『김정일선집(1)』,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5(1970.1-1970.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저작집 5(1949.1-1950.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묘향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저작집 5(1949.1-1950.6)』,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혁명군대의 참다운 문예전사가 되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 지도일군 및 배우들과 한 담화, 1947년 4월 30일」, 『김일성저작집 3(1947.1-1947.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정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4일」, 『김정일선집(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89년 12월 28일」, 『김정일선집(9)』,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리광명**, 「천연기념물 제1호」, 『천리마』 2003년 12호(천리마사, 2003
- 리원희**, 「5세기초이전 고구려-신라 관계에 대하여」, 『력사과학』 2009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 문화체육부**, 『김정일 문예관 연구』, 문화체육부, 1996.
- 문화체육부**, 『북한식 문화예술 창작 방법론 연구』, 문화체육부, 1998.
-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행정제도 연구(문화자료편)』, 문화체육부, 1995.
- 문화체육부**, 『북한의 문화예술행정제도 연구』, 문화체육부, 1995.
- 박대남**, 『북한의 문화재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박영근**,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박영정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박영정 외**, 『북한의 문화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 송승섭**, 『북한자료의 수집과 활용』, 한국학술정보, 2011.
- 오양열**,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윤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고려원, 1990.
-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장상렬, 「평양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의 도시」, 『천리마』 1989년 11호, 천리마사, 1989.

전영선, 「북한의 민족문화정책 기본과 사적 흐름」, 『한국문화연구』 6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전영선,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문예정책」 『통일논총』 17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9.

崔五柱, 『南北統一 對備 文化財保存管理 政策研究』,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홍기문, 「민족문화유산을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 『조선문학』 1971년 5호.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목록

- | | |
|------------------------|--------------------------|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34 강성대국의 허와 실 |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36 북한사람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37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38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과제 |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39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40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41 북한의 양면성 |
| 18 북한의 의료실태 | 42 통일과 인문학 |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43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
| 21 북한의 체육실태 | 45 남북정치공동체 형성방안 |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46 북한, 도시로 읽다 |
| 23 북한의 대남전략 | 47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

